

# 무주 사회복지 가족 한자리에

사회복지의 날 기념대회  
반딧불시장 원형광장서  
종사자 등 300여명 참석



제19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무주군 사회복지대회가 13일 무주반딧불시장 원형광장에서 개최됐다.

제19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무주군 사회복지대회가 13일 무주반딧불시장 원형광장에서 개최됐다.

무주군이 주최하고 무주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오용식)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유승열 무주군의회회장, 황의탁 도의원을 비롯한 관내 기관·사회단체장들과 사회복지종사자,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기념식과 사회복지인 휴(休)데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참사랑지역아동센터 김난희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무주군수상을 받았으며, 평화요양원 김승자 조리장이 무주군의회 의장상을, 무주종합복지관 후원기 팀장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상을 수상했다.

또 무주군청 박기훈 노인복지담당과 무주청소년수련관 황인화 씨가 전북 사회복지협의회장상을 받았으며, 하

은의 집 최선경 씨가 무주·진안·장수 사회복지사협회장상을, 무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곽태곤 씨와 무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주홍 씨가 무주군사회복지협의회장상을 받았다.

무주읍 맞춤형복지팀은 적극적인 민·관 협력으로 지역복지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무주군사회복지협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군수는 "사회복지인으로서의 자긍심이 무주를 무주

답게 군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며 "이 자리가 고생하시는 여러분께 위안이 되고 앞으로의 날들에 용기를 주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2부 행사 '사회복지인 휴(休)데이'에서는 지역복지를 알리고 체험하는 시간, 그리고 소규모 야외공연과 더불어 무주시장상인회가 준비한 다과를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이 마련돼 호응을 얻었다.

/무주=전문선기자

# '한우랑사과랑 축제' 준비 막바지 작업 박차

장수군, 추진 현장 보고회  
조형물 등 설치상태 확인

장수군(군수 장영수)은 '제12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추진 현장 보고회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의안공인 일원에서 진행된 현장보고회는 장영수 군수와 신달호 부군수, 각 부서 과장 등 관계자 40여명

이 참석했다. 이들은 축제장 내 조형물 및 가건물의 설치상태를 확인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막바지 축제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장영수 군수는 "올해로 12회를 맞이하는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축제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하며 "축제장 내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방

문객 모두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는 2018년 문화관광부지정 육성축제 및 전라북도 최우수축제로 지정됐으며, 11회 축제에는 30만 명의 관광객 방문과 행사장 판매액 31억원, 경제효과 93억 원이라는 성과를 올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장수=고판호기자

# 주민참여 지진대피훈련 '실전처럼'

진안군, 전 공공시설 대상 민방위 훈련 연계 진행

진안군은 지난 12일 2018년 지진안전주간을 맞아 제408차 민방위 훈련과 연계해 진안군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참여 지진대피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2016년 9월 12일 경주 지진발생으로 9월 12일이 속한 주간을 지진안전주간으로 정해 실시한 지진대피훈련이다. 진안군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마이산관광정보센터,

읍·면사무소 등 진안군 전 공공시설에서 실시됐다.

진안군은 주민자치센터를 중점훈련 대상으로 지정하고 훈련이 진행됐으며 진안경찰서, 119안전센터, 자원봉사센터, 지역자원방재단 등 유관 기관 사회단체에서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대규모 지진 발생 시 건물 인력에서 신속한 대피와 행동요

령 숙지, 응급환자 이송, 지진에 의한 건축물 붕괴에 대비한 건물통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로 실시했다.

훈련 종료 후에는 진안군 의료원에서 CPR교육을 통해 주민들이 인명피해 등 재난에 대비하는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항로 군수는 "지진발생시 주민행동요령과 지진대피소 장소 등을 평소 잘 익혀서 가족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피훈련에 참여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민기자



진안군은 13일 '제11회 치매극복의 날' 행사를 진안문화의 집에서 개최한 가운데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 "치매 극복, 함께 합시다"

진안, 제조·부스 운영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 펼쳐

진안군은 13일 '제11회 치매극복의 날' 행사를 진안문화의 집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치매극복의 날(9월 21일)을 앞두고 지역주민에게 치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치매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킴으로써 치매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치매 애(愛) 희망을 나누다'라는 주제로 뇌 활성화에 효과적인 동작으로 구성된 치매타파체조를 시작으로 경쾌하게 시작했다.

치매타파 체조는 남녀노소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으로 구성돼 있으며, 가위바위보, 제자리걸기 등 간단한 동작을 경쾌한 음악에 맞춰 되풀이하는 율동으로 뇌기능 활성화와 노인 우울감 해소에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체조다.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부대행사로 치매예방 홍보부스 운영과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생각나무' 만들기 게임을 통해 치매예방법을 배워보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이정복 교수를 초빙해 웃음과 감동으로 치매 없는 행복한 생활을 살아가는 마음가짐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2부 행사로,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위한 딸의 사모곡을 주제로 한 창작 마당놀이와 가이름 병창, 장구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펼쳐져 지역주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이항로 군수는 "치매는 나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일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으로 치매안심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이용해 치매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민기자

## 지역 매아리

### 장수 행정전화번호 전면 개편

장수군은 조직개편 시행을 앞두고 원활한 대민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본청 및 사업소, 각 읍·면사무소의 행정전화번호를 새로운 번호 체계로 개편·변경한다고 13일 밝혔다.

장수군은 그동안 일관성 없이 사용돼 군민들에게 불편을 준 각 부서 행정전화번호를 군민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직제 순으로 통일된 행정전화번호를 부여한다.

장수군은 행정전화번호 개편으로 군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군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편된 행정전화번호를 본청 민원실과 읍면사무소에 비치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적극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장수=고판호기자

### 진안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참여

진안 마령 마이산골과 동향 천반산 구리고을 마을이 14일부터 16일까지 전북 도청 광장에서 열리는 추석맞이 정보화마을 직거래 장터에 참여한다.

이번 정보화마을 직거래장터는 도내 32개 정보화마을에서 생산한 과일, 견과류, 발효식품 등 100여종의 품질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다.

진안은 호박고구마, 도라지, 사과, 오미자 등을 주력 상품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무료 시식회, 행운권 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돼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도시민들에게 진안군 정보화마을 홍보는 물론 전 시장거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민기자

### 사랑의 고추장 나눔행사 추진

장수군 산서면(면장 조금현)은 지난 12일 산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1명과 함께 사랑의 고추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2018년 산서면 맞춤형 복지 특화사업에서 선정된 사랑의 고추장 나눔 사업으로 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참여해 고추다듬기 작업을 펼쳤다.

다듬어진 고추는 고추장으로 제조돼 만65세 이상 면내 거주 독거노인 200여 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조금현 면장은 "산서면내 복지서비스 전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협의체 위원들과 오늘 다 함께 참여하게 돼 매우 뿌듯했다"며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이 맞춤형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체 위원들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기자

###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 방방곡곡 직거래 장터 운영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이 전국 소비자들을 찾아 나섰다.

2018 추석맞이 전국 직거래장터는 오는 22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대전 정부청사와 서구청 서울시장 광장, 전북도청 광장, 지방행정연수원, 파인푸드 페스티벌이 열리는 킨텍스, 세종시 삼성장터, 가장 군청과 정관읍도서관, 안산시 고잔동 주민자치센터, 부천시 상 2동 행복복지센터, 군포시 한성목화아파트와 율곡아파트에서 주민들을 만난다.

2018 추석맞이 전국 직거래장터에는 사과와 포도, 복숭아, 표고, 더덕, 천

마, 쌀 등 반딧불농산물을 직접 재배한 농가들도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군청 농업소득과 임경택 농업마케팅 담당 주무관은 "농가들이 직접 참여해 소비자와 만나면서 공간 맛과 품질로 승부해 온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의 신뢰와 인지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판매망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라며 "항상 믿고 기다려주시는 소비자를 위해 선물용, 제수용으로 손색이 없는 좋은 농·특산물을 가지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기자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眞心 眞心  
홍삼주